

어린이집 휴원·교회 고위험시설 추가...고강도 방역 조치

코로나19 확산 비상

다단계·방문업체 집합금지 명령
북구 초중고 12일까지 등교 중지
노인 요양시설 2주간 면회 금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해 등교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또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과 학원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전남도 역시 인접한 광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일부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격리를 6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의 외부인 면회 금지 등의 조치가 나왔다.

◇어린이집 1073곳 18일까지 휴원=광주시는 6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집 1073 곳을 전면 휴원조치했다. 지역 내 어린이 집들은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6월 1일 휴원이 해제됐으나, 1개월 만에 또 휴원에 들어가게 됐다. 시는 휴원 기간에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사는 정상 근무하고 시간제 보육 기관(29곳)은 정상 운영하도록 했다. 또 휴원기간에는 출석을 인정해 보육료와 인건비를 그대로 지원한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4곳이다. 광주 첫 초등학교 감염자가 나온 북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도 오는 12일까지 등교를 중지한다. 수업은 온라인 원격으로 전환되며,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은 제외한다. 확진자가 발생해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일동초는 오는 19일까지 2주간 원격수업을 한다. 유치원과 초교, 특수학교 긴급돌봄은 일동초를 제외하고 종전대로 실시한다. 일동초 돌봄교실은 10일까지 중지한다. 북구를 제외한 동·서·남·광산 관내 학교는 6일부터 15일까지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하루 등교 인원은 초·중교 전체 학생의 3분의 1 내외, 고교는 3분의 2 내외로 제한한다. 학원도 이날 원생 수와 상관없이 모두 고위험시설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내 모든 학원은 오는 1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 50인 미만, 전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오는 15일까지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는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광주시는 관내 다단계 1개, 후원방문판매 121개, 일반방문판매 437개 등 559개 방문판매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



이영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등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전남 26, 27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며,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집합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선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치료비 등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이달부터 방역수칙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시설 등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신설해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코호트 격리 전 단계로 2주간 면회를 금지했으며,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출퇴근 이외에 다른 시

설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 7일부터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한다.

◇전남도, 광주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남도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자가 점차 늘어나고 인접한 광주의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의 교류·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남 역시 확진자 급증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발표를 통해 "6일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내용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전면 금지 ▲대중교통,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 금지 ▲공공기관 등이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전면 중단 등이다.

이밖에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생활 속 거리두기'만으로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라며 "더운 날씨로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최근 광주·전남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의 외부인 면회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도민 담화문을 긴급 발표하기도 했다. 또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시·군별로 집합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방문판매사업자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위반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남은 지난 3일부터 버스,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일반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이용객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도 취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화파 전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문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개편
박지원·임종석 등 발탁
대북 해결사 총동원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안보라인을 꾸미는 데 활용 가능한 대북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메시지인 동시에, 고비를 맞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는 절박감이 담긴 인신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깜짝 발탁한 것은 여권 내에서도 파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 정치인을 장관급으로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박 전 의원이 가진 대북문제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박 내정자 낙점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지난달 17일(대북관계 관련 조인을 듣기 위한) 원로 오찬이 있었는데, (국정원장 후임) 박 내정자로 정리된 것은 그 이후며 대통령은 박 내정자를 오래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박 내정자의 악연은 상당하다.

박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대북송금 특별법이 공포된 뒤 특검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또 지난 2015년 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박 내정자는 문 대통령을 '친노 패권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2017년 대선 때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거의 매일 문 대통령을 비난해 '하루를 문 대통령 비판으로 시작한다'는 뜻의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박 내정자는 지난 대선 이후

야당에 몸담으면서도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으며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공감을 쌓아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명했다.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서훈 국가안보실장' 조합 의미도 작지 않다. 우선 베테랑 대북 전문가로 꼽히는 서훈 국정원장에게 국가안보 사령탑을 맡긴 것은 북한을 향한 확실한 관계개선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여기에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에 4선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카드를 배치, 무게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당권 경쟁 이낙연·김부겸 양자구도 압축

홍영표·우원식 불출마 선언
이낙연 내일, 김부겸 9일 출마선언
온라인 전대·친문 표심이 변수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당초 이낙연, 우원식, 홍영표 의원, 김부겸 전 의원 간 4파전이 예상됐으나 지난 3일 홍 의원에 이어 우 의원이 5일 출마의사를 접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이날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 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경쟁이 양자 구도로 정리됨에 따라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출

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게 출마 선언식도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7개월이라는 제한된 임기 내에서 어떻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할지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가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장소를 당사로 고른 것은 1990년대 초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민주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활동을 했던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을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마 선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며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대권주자이지만 당 대표가 될 경우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약속하며 이 의원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구도에 따라 세 규합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대가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체제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당심'이 차기 대표 선출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온라인 당심-친문제언계(친문계) 당원'으로 해석되는 만큼 당권주자들은 친문 그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승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세론'을 견제하려는 링 밖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또 경쟁을 치열해질수록 호남(이낙연) 대영남(김부겸) 같은 지역 구도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상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판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